

수시 70.5% 역대 최고...학종 영향력 확대

〈학생부 종합전형〉

201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요강

전체 35만20명 선발...6개 원서 전략적 선택 중요
75개교 학생부 100% 반영...지역인재 특별전형 늘어

‘201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 선발 비중이 70.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수시 모집으로 입학하게 되는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주요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영향력이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수시모집 레이스는 오는 9월 12일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1일 197개 4년제 대학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대입 대세는 수시? = 4년제 대학들의 전체 모집 인원은 35만20명으로 전년도(35만7278명)보다 줄어 들었다. 하지만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24만6891명으로, 전년도인 2016학년도(24만976명)에 견줘 늘어났다.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모집 비중도 70.5%에 이르는 등 2016학년도(67.4%)보다 확대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수능시험 중심의 ‘정시’보다 ‘수시’가 대입의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시모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부 중심 전형(교과·종합) 비중도 85.8%(21만1762명)에 달한다. 학생부를 6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34개교(인문사회계열 기준)에 이르고 75개교는 학생부 반영 비율이 100%다.

특히 내신 성적은 물론 동아리·독서·봉사 활동 등 비(非)교과 활동까지 평가해 뽑는 ‘학생부 종합전형’(학종)비중은 29.5%로 전년도(27.9%)에 비해 올 해 1.6%포인트 늘어났다. 학생 수를 놓고 보면 5536명(2016학년도 6만7231명→2017학년도 7만2767명) 늘어났다. 학생부 교과전형 비율은 56.3%로 전년(57.3%)보다 줄었다.

올해 수시에서 논술시험을 보는 대학은 고려대·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이화여대 등 28개교로 전년도와 같지만 모집인원은 0.4%포인트 감소(508명)한 1만4689명이다. 적성시험을 치르는 대학은 10개교(4479명)로 2016학년도(11개교 4592명)보다 줄었다. 지역인재의 대학입학 기회를 늘리기 위한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선

■ 수시모집 대학입학전형 일정

구분	기간
원서 접수	9.12(월)~9.21(수)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9.12(월)~12.14(수)(94일)
합격자 발표	12.16(금) 이전
최초 등록기간	12.19(월) ~ 21(수)(3일)
미등록 총원 합격통보기간	12.28(수) 21:00 이전
미등록총원 등록기간	12.29(목)

발하는 인원은 1만16명으로 지난해(9535명)보다 481명 늘었다. 전체 수시모집 인원 중 4.1%를 차지한다. 전남대, 조선대, 동신대는 의·치·한의예과 신입생 중 81명(전남대 30명·조선대 43명·동신대 8명)을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6개 원서, 어느 대학에 넣을까 = 수험생은 수시모집 기간 6차례의 원서를 낼 수 있고 복수합격자는 등록 기간 내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수험생은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6월 모의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가늠한 뒤 원서를 넣을 6개 학교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시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대학별로는 광주·전남 국립대의 경우

■ 대학별 모집인원(단위:명)

대학명	인원	대학명	인원
목포대	1,237	서강대	1,174
목포해양대	492	성균관대	2,701
서울대	2,571	송원대	753
순천대	1,234	연세대(서울)	2,604
전남대(광주)	2193	이화여대	2,159
전남대(여수)	601	조선대	3,200
경희대	3,771	중앙대(서울)	2,822
고려대(서울)	3,115	한국외대(서울)	1,122
광주대	1,616	한양대(서울)	2,227
광주여대	883	호남대	1,586
남부대	757	광주교대	210
동신대	1,499	광주과학기술원	175

전남대가 2193명을 뽑고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601명을 선발한다. 목포대 1237명, 순천대 1234명, 목포해양대 492명, 광주교대 210명, 광주과학기술원 175명 등이다.

사립대로는 조선대가 3200명을 수시로 선발할 예정이며 광주대 1616명, 광주여대 883명, 남부대 757명, 동신대 1499명, 송원대 753명, 호남대 1586명 등을 뽑는다.

장광재 송덕고 진로진학담당부장은 “수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면서 “다만, 모의고사 성적이 상승세라면 수능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수시모집 전형요소 반영비율(인문사회계열)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 분포

구분	대학명
100%	〈국공립〉 경북대, 광주대, 군산대, 목포대, 순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교통대(사립) 단국대(경기), 대전대, 덕성여대, 목포가톨릭대, 상명대(서울), 송원대, 영남대, 원광대, 조선대, 차의과학대, 초당대
80% 이상	〈국공립〉 전남대, 충북대(사립) 가야대(김해), 갈리교신학대, 경운대, 김천대, 남서울대, 삼육대, 호남대
60% 이상	〈국공립〉 안동대(사립) 고려대(세종), 광주가톨릭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동대, 남부대, 동신대
50% 이상	〈사립〉 호남신학대, 홍익대(세종)
40% 이상	〈사립〉 건국대(서울), 경기대, 고려대(서울), 광운대, 대구외대, 동국대(서울),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중앙대(서울), 칼빈대, 한국항공대, 한양대(ERICA), 한양대(서울)
30% 이상	〈국공립〉 서울과학기술대(사립) 경희대, 부산가톨릭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외대(서울), 한국외대(웅인)
30% 미만	〈사립〉 연세대(서울), 인제대

□ 면접구술

구분	대학명
20% 이상	〈국공립〉 경북대, 군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사립)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남부대, 동덕여대, 동신대, 부산외국어대, 상명대(서울), 송원대, 영남대, 전주대, 조선대, 중앙대(서울), 청운대, 초당대, 한국항공대, 호남대
20% 미만	〈국공립〉 광주대, 충남대(사립) 청주대

□ 논술

구분	대학명
80% 이상	〈국공립〉 경북대(사립) 연세대(서울)
60% 이상	〈국공립〉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사립) 가톨릭대, 건국대(서울),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서울), 광운대, 단국대(경기), 동국대(서울),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서울), 한국외대(서울), 한국외대(웅인), 한국항공대, 한양대(ERICA), 한양대(서울), 홍익대(서울)

■ 수시모집 전형요소 반영비율(자연계열)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 분포

구분	대학명
100%	〈국공립〉 강릉원주대, 경북대, 광주대, 군산대, 목포대, 순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교통대(사립) 단국대(경기), 단국대(충남), 대구한의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경주), 동신대, 명지대, 목포가톨릭대, 상명대(서울), 상명대(천안), 송원대, 영남대, 원광대, 전주대, 조선대, 차의과학대, 청주대, 초당대, 한남대, 홍익대(서울)
80% 이상	〈국공립〉 전남대, 충북대(사립) 경운대, 남서울대, 삼육대, 신한대, 호남대
60% 이상	〈국공립〉 안동대(사립) 고려대(세종),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대구대, 대구예술대
50% 이상	〈사립〉 목원대, 우송대, 홍익대(세종)
40% 이상	〈사립〉 건국대(서울), 고려대(서울), 광운대, 동국대(서울),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중앙대(경기), 중앙대(서울), 한국항공대, 한서대, 한양대(ERICA), 한양대(서울)
30% 이상	〈국공립〉 서울과학기술대(사립) 경희대, 부산가톨릭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인하대, 한중대
30% 미만	〈사립〉 연세대(서울), 인제대

□ 면접구술

구분	대학명
20% 이상	〈국공립〉 경북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사립)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남부대, 동덕여대, 동신대, 부산외국어대, 상명대(서울), 서울여대, 송원대, 영남대, 우석대, 전주대, 조선대, 중앙대(서울), 초당대, 한국항공대, 호남대
20% 미만	〈국공립〉 광주대, 충남대

□ 논술

구분	대학명
80% 이상	〈국공립〉 경북대(사립) 연세대(서울)
60% 이상	〈국공립〉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사립) 건국대(서울), 경희대, 고려대(서울), 광운대, 단국대(경기), 동국대(서울),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경기), 중앙대(서울), 한국항공대, 한양대(ERICA), 한양대(서울), 홍익대(서울)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4	해질녘	21:13
해짐	19:43	달짐	07:42

그늘을 찾아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많고 무더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23/33	보성	구름많음	20/29
목포	구름많음	23/30	순천	구름많음	22/31
여수	구름많음	22/27	영광	구름많음	23/33
나주	구름많음	22/33	진도	구름많음	23/30
완도	구름많음	23/28	전주	구름많음	24/33
구례	구름많음	20/33	군산	구름많음	23/31
강진	구름많음	22/30	남원	구름많음	22/32
해남	구름많음	23/30	흑산도	구름많음	22/25
장성	구름많음	21/32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서해	남동~남	0.5~1.5
남부	남동~남	1.0~2.0
남해	남동~남	0.5~1.0
서부	남동~남	0.5~0.5
면바다(시)	남동~남	0.5~0.5

목포	밀물	썰물
	03:54	09:02
	15:54	21:06
여수	10:31	04:29
	23:04	16:27

◇ 주간 날씨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29(금)
23/32	23/32	24/32	24/32	23/29	23/31	23/32

대법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법원의 기존 입장이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모(4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국민의 의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올해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고 변호인과 검사 측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정씨는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2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기소됐다.

1, 2심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항소심은 정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연합뉴스

“자동차 공회전 안돼요”...9월까지 단속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지역은 광역자치체 조례가 정한 전국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7633 곳이다. 주로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이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도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하고, 공

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홍등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주·정차할 때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총-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원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